

증례 V - 2

교합평면이 붕괴된 환자의 보철수복 증례

권구현, 우이형, 최대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합평면이란 이론적으로 절치의 절단연과 구치 교합면의 교두정이 접촉하는 가상면을 말한다. plane이란 용어는 기하학적으로 평면(flat surface)을 말하기 때문에 교합면이 진정한 plane을 따르는 것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교합평면은 평면이 아니고 교합면의 평균적 만곡을 나타낸다.

1. 전치의 만곡은 상악에서 심미적으로 정확한 미소선(smile line)의 확립과 하악절단연과 전방유도와의 관계와 발음에 대한 요구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2. 구치부 만곡은 전후방 만곡 즉 curve of Spee와 내측방 만곡 즉 curve of Wilson으로 나뉘어진다.

이는 전방운동시 구치의 이개를 허용하도록 되어있어 전체적인 저작계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본 증례는 31세의 여성환자로서 장기간의 치아 결손으로 인해 대합치와 치조골이 정출되어 교합평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였다. 먼저 환자의 수평적인 악간관계(중심교합과 중심위)와 수직적인 악간관계(수직고경), 교합평면을 검사하여 환자의 습관적 폐구위(habitual bite)를 수평적인 악간관계로 설정하고 현재의 수직고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Broadrick Occlusal Plane

Analyzer를 이용하여 교합평면을 이상적으로 개선한 진단 왁스업을 시행하였다. 구강검사, 방사선 검사, 모형검사, 진단왁스업된 모형을 이용해 보철, 치주 외과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출된 치아는 그 정도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동반하여 발거, 치조골 절제술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관장 연장술 후 보철 수복하였다.

임시수복물(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교합의 회복, 교합의 유지, 교합평면의 재형성, 전방유도시 적절한 구치 이개를 얻은 후 이를 토대로 customized anterior guidance table을 이용하여 전치부 최종보철물을 제작하였고 구치부는 고정성 보철 및 임플란트로 수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심미적, 기능적인 보철 수복이 가능하였기에 증례보고하는 바이다.